

진흥회 활동

'95 전자산업경기 전망 세미나 개최

본회는 전자 신문사와 공동으로 전자업계 임직원 및 관계기관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14일 서울 르네상스호텔 3층(다이아몬드룸)에서 '95년 전자산업 경기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95년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의 회복세와 국제금리 및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시장 개방, 원화의 상승 등 대내·외적인 변화 가운데서도 '95년도 국내 전자산업은 생산이 전년대비 17.5% 증가한 44조 4,960억원, 수출은 엔고 효과의 점진적인 감소와 원화 절상, 반도체 공급과잉에 따른 수출둔화가 예상되어 금년의 증가율에 못미친 16% 증가한 343억 4,200만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로컬은 산업용기기 및 가정용기기의 수출 호조에 따른 수요 증가로 금년보다 20.7% 증가

한 52억불로 예상되며, 시판은 멀티미디어 제품 및 백색 가전제품의 유색화, CATV 방송의 실시 등에 따른 수요 유발로 전년대비 17.7% 증가한 11조 4,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은 산업용기기 및 부품 등 생산재의 수입은 줄겠으나 선진국들의 덤핑 공세와 유통시장 개방 등으로 내구소비재의 증가로 인해 '95년에는 전년대비 25.5% 증가한 227억 6,600만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 전망을 보면, 가정용기기는 국내의 경기의 회복과 국내 판매 가격인하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생산이 11조 4,390억원으로 9.9%, 수출은 엔화의 강세와 미국경기 회복, 수출선 다변화,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과 성능인정 등 시장여건 변화로 10.1% 증가된 79억 600만불, 이중 C-TV, VCR는 각각 18억불, 16억 1,000불을 차지하여 13.2%, 8.9%의 성장률을 보였다.

세탁기, 캠코더, 진공청소기는 30%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판은 국내 경기 회복, 제품가격인하, 특소세 인하로 인한 수요 지속과 CATV방송에 따른 수요가, 주요 제품의 대형, 고급화 추세가 지속되어 성장이 예상되나 제품 가격인하에 따른 수익성 정체와 보급률 포화, 유통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로 4조 7,240억으로 9.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용기기는 생산이 22%가 증가된 9조 7,360억원으로, 이중 개인용 컴퓨터가 1조 1,620억원 18.1%, 모니터 2조 1,300억원



10.5%를 보였으며, 무선호출기와 CATV용 컨버터가 각각 110.1%, 130.2% 증가될 전망이다.

수출은 63억 200만불로 14.6% 증가할 전망이다. 이중 모니터가 21억 5,000만불로 전체의 34%를 점유, 키보드, 셀룰러폰, 무선호출기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시판은 4조 900억원으로 23.6% 증가될 전망이다. 개인용 컴퓨터가 9,070억원으로 26.5%, 위성방송수신기 무선호출기 등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95년 반도체(메모리 중심)는 생산 13조 530억원으로 23.4%, 수출 143억 8,000만불로 23% 시판 7,190억원으로 32.1% 증가할 전망이다.

DRAM의 경우 1M DRAM은 크게 위축되고 4M DRAM은 당분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부품은 생산이 10조 1,780억원 14.5% 수출이 57억 3,500만불로 13.4%, 시판 1조 9,110억원으로 23.8% 증가되고 수출은 엔고 지속과 동남아, 중국의 가전제품 생산 확대에 의한 관련 부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일반 부품의 경우 동남아 국가들의 저가 공세로 가격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 겪을 전망이다.

제품동향은 설비 투자를 지속해 온 LCD, CRT, 다층 PCB 등이 부품산업을 주도, 세트제품의 경박단소화로 칩화, 모듈화된 부품의 수요가 증가될 전망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5년도 국내 전자산업은 두자리 이상으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엔화 절상 속도의 둔화, 선진국의 지적재산권 및 환경보호규제 강화, 중국 등 후발 개도국의 추격 가속화 등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산재되어 있어 우리 기업의 첨단 신기술 개발에 투자 확대를 통한 기업의 체질 강화 및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층 더 힘을 길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본회의 가전업계, 폐기물 회수·처리제도 개선 건의

본회의와 금성사, 대우전자, 삼성전자 등 가전업계는 환경처가 제시한 폐기물예치금요율 인상안에 대해, 가전제품은 그 대상품목으로 부적절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예치금제도가 실효성이 없음에도 예치금요율만 대폭 인상을 하자 하는 것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보아 이를 개선하여 줄것을 관계기관에 건의 하였다.

이번에 지시된 예치금제도 개선방안은 크게 5개항으로 되어있으나 4개항은 부수적인 조치이며 그 골격은 폐기물의 회수·처리가 부진한 요인이 예치금요율이 낮은데 있다고 보아 이를 대폭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 안에 의하면 가전업계는 '95년에 금년보다 288%가 증가된 111억원, '97년에는 214%가 증가된 235억원, 2000년에는 162%가 증가된 380억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폐가전제품의 회수·처리가 아직 저조한 요인은 예치금요율이 낮은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파쇄기, 소각로, 매립장 등)이 부족하고 재활용산업이 육성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에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예치금제도가 제조자에게 이러한 사회간접시설의 구축과 재활용산업 육성까지를 전제로 전국의 소비자가 배출한 모든 폐기물의 회수·처리와 재활용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라면 제조자는 경쟁력 있는 제품의 개발, 생산, 수출 등 기업 본연의 활동도 곤란할 뿐 아니라 폐기물의 회수·처리 및 재활용의 다른 당사자인 소비자, 판매자, 지방자치단체, 정부, 재활용업계 등과의 협력이 어려워 폐기물의 회수·처리 및 재활용도 어렵다.

예치금은 회수·처리자에게 반환되는 것이므로 그 요율을 인상한다해도 회수·처리 및 재활용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에 이를 직접 이용할 수 없어 그 실효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데다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가전제품은 제조자가 폐가전품을 직접 재활용할 수 없어 제조자와의 회수 동기가 전혀 없는 품목을 예치금대상품목으로 설정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회수운반비)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또 예치금(회수운반비와 처리비) 대상품목으로 설정해 2중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실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전제품을 예치금대상품목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가전업계는 제조자로서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제품 개발, 생산단계부터 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 용이화에 대한 사전평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또 업계 공동으로 실제 폐가전품을 회수·처리 및 재활용하고 있는 전문업체(8개지역: 8개사)와 계약하에 동 사업을 수행중에 있어 전문업체에 대한 정부지원만 있으면 업계 자율적으로 회수·처리가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차년도('95년) 회수·처리 목표: 배출량의 16%]

이상과 같은 사유로 전자공업진흥회와 가전업계는, 가전제품을 예치금대상품목에서 제외시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 수수료대상품목으로 제도를 일원화해 회수·처리 및 재활용사업을 추진해 줄 것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재활용산업을 시급히 육성시켜 주고 예치금요율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시장기능 즉, 폐가전품 회수·처리 및 재활용사업자와 동 사업 위탁사업자간에 자율로 요율을 정하여 폐기물을 원활하게 회수·처리할 수 있도록

록 지원해줄 것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였다.

'94년도 증무식 및 '95년도 시무식 거행

본회는 '94년도 증무식 및 '95년도 시무식을 지난 12월 31일과 '95년 1월 3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거행하였다.

본회 임직원 모두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이상원 상근부회장은 "94년도 전자산업의 대내외 환경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써 오늘의 전자산업이 있었다고 치하하고 95년도에는 본회 회원사를 위해 진정 필요한 진흥회가 될 수 있기를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회원사 서비스를 향상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을 다함께 이룩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또한 95년도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혼신의 힘을 다해줄 것과 전문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무식에서는 이러한 배경으로 전임직원이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 의 문〉

우리 진흥회는 금년을 「회원서비스 배가의

해」로 설정하고 전임직원들은 회원사에 대한 충실한 서비스 확충에 총력을 경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회원사를 내회사로 인식하고 친절·봉사정신을 생활화 한다.
- 우리는 회원서비스 생활화를 위한 의식개혁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 우리는 회원사 발전이 전자공업의 진흥으로 알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간다.
- 우리는 진흥회를 회원 서비스 최고의 단체로 발전시켜 전자공업을 국민경제 선도산업으로 진흥한다.

1995. 1. 3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임직원 일동

주요 전자부품 국산화 활기

전자기기업체와 부품업체공동의 주요부품 국산화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다.

본회와 삼성전자, 금성사, 대우전자, 현대전자 등 전자 4사 및 한국전자가 181개 부품업체와 공동으로 국산화한 부품은 올들어 9월말까지 239개 품목(534개 규격)으로 당초 계획했던 184개 품목(498개 규격)보다 30%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2억 1,800여만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둬으로써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 2,600여만 달러에 비해 72.1%가 증가하는 한편 대일 수입대체액도 9,000여만 달러에 달했다. 이들 업체의 원가절감액은 275억여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컬러TV와 오디오, 모니터용 부품의 경우는 4,100여만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면서 전자부품 국산화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관련부품업체들과 65개 품목을 국산화시킴으로써 5,500여만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었다.

36개 부품업체와 국산화 개발을 추진한 금성사는 57개 품목의 국산화에 성공, 1,800만 달러 가까이 수입대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전자는 39개 품목을 국산화시켜 4,800만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올렸으며 현대전자는 75개 품목을 국산화, 9,600여만 달러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두었다. 한국전자는 3개 품목을 국산화해 1만여 달러에 이르는 대체실적을 달성했다.

산업협의회 활동

H A기기산업협의회는 지난 12월 6일 본회 회의실에서 현대전자·한국통신, 대우전자 등 실무자들이 참석 HA기기 개발 과제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전 자부품산업협의회는 지난 12월 1일 본회 회의실에서 TV용 Power Relay 표준화 회의를 개최 동표준화를 협의했다.

전 자부품산업협의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 회의실에서 FBT용 컴포지션 저항기 표준화 회의를 개최했다.

자 기미디어산업협의회는 지난 12월 5일 (주)금성사 청주공장에서 동협의회 임원 회의를 개최하고 비디오 테이프 수출 현황을 파악했다.

전 자부품산업협의회 음극선관 기술 표준화 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본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ECRC운영을 위한 등록 작업의 한글 DB화 방안을 협의했다.